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4호 [루게 제24607호] 주체 103(2014)년 7월 13일 (일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일본국회의원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국회의원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회람의원 의원인 이노기 간지단장이 11일 조일 드렸다. 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디》를 민주공화국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2일 민주공화국로동계시민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에는 민주공화국공산당, 민주공화국로동계시민협회, 민주공화국조선전선 및 대외성협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이며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앙드레 로베를레 갈라디는 발행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2년 4월 20일 력사적인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디》를 발표하시었다.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20세기를 빛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시고 한생을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세계, 인민의 리상과 꿈이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조선뿐 아니라 세계에 명성을 떨치셨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지 20년이 되었지만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날 인류의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이께서 전인민당의 사회주의길을 걸으면서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남긴 고전의 고등은 멈추시었지만 앞으로 도 영원히 인류의 태양으로 영영하신 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에파도르에서 업적증서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고위위원회 서기장인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에파도르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알바레스 켈리, 에파도르 파란다협회에서 업적증서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업적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6월 29일 에파도르 파란다시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에파도르 김일성주석회 고위위원회 서기장인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에파도르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알바레스 켈리, 에파도르 파란다협회 고위위원회 파란다지구 서기인 조선인민당의 친선문화대대장 리오 발레스페로스 에스벤, 에파도르 공산당 볼리바르주지부 당원들, 볼리바르주 파란다시와 19개 군 장관들, 기타 관계부문 인사들,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에파도르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나라 교외의학박사단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행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업적증서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우리나라 교외의학박사단 단장에게 전달되었다. 증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증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0돐이 되는 2014년 7월 8일을 맞으며 우리들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위인을 칭송하고 회고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면서 우리 인민들의 영원한 귀감인 결출한 수령께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 상이 증서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황포한 자연을 길들이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혁신

상반년기간 먹이풀씨뿌리기, 3회감매기, 배수로치기계획 수행, 자연풀관조성과 대상건설 활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지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황포한 자연을 길들이며 건설성과를 높여나갔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상반년기간에 계획된 먹이풀씨뿌리기를 150%이상, 먹이풀관조 3회감매기와 380km의 배수로치기를 100%수행하였으며 수천정보의 자연풀관을 조성하였다. 또한 살림집, 집집승우리 등 660동의 건물들에 대한 기초공작리트리기, 벽체쌓기, 층막치기를 진행하였으며 세포리관, 세포축산연구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의 내외부공사도 힘있게 내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희망한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적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중앙현장지휘부에서는 불철 불포관조성과 대상건설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시하고 흙갈이와 토양개량제실어내기 등을 병행하면서 먹이풀씨확보를 동시에 내밀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모든 단위들에서 먹이풀씨뿌리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먹이풀을 안전하게 자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또한 가을과 겨울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경제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먹이풀씨뿌리기를 특히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일군들은 유년사육을 일일적으로 설계를 앞세우고 시공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내밀었다. 모든 단위들이 집집승우리장조성을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인민보안부돌격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지휘관들은 군인건설자들속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위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언령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할 의지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계획된 먹이풀관조성과 제를 141%로 수행하였으며 이미 조성한 100여정보의 풀관에 먹이풀모를 더 옮겨심었다. 또한 6700여의 질 좋은 거름과 500여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먹이풀관에 실어내고 3회감매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5300여m의 배수로치기와 50여km의 물도랑정리, 여러 배수의 구간에 들쭉

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계획된 대상건설과제를 100%수행하였다. 지금 군인건설자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앞당겨 실현하는 위훈의 길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장마철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며 먹이풀비배관리와 대상건설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철도성려단 개천철도국대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통나무생산에서 최고실적 기록 121호립업연합기업소에서

121호립업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통나무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연합기업소적으로 지난 6월말까지 상반년계획을 114.8%로 넘쳐수행한데 이어 3개의 사업소가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연합기업소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통나무생산이 1.3배이상 장성하였으므로 20년이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한것으로 되었다. 이 자랑스런 성과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펼쳐나선 연합기업소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과 애국적헌신성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적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뎀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121호립업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연일 통나무생산계획을 공화국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적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비상히 양양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하게 벌려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산배에 달려나가 통나무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연합기업소의 립산사업소에서는 월, 분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혁신을 세차게 지켜올랐다. 자서림산사업소가 혁신의 앞장서 힘차게 내밀었다. 사업소소의 자동차운전사들은 호상간 수송경기를 활발히 벌려보통매의 2배, 3배실적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다. 운전사들은 자동차들이 경사가 급한 구간을 극복하여 산배로장정에 접근할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자시나트에서 연 일 혁신을 일으키었다. 최경철, 김선도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소의 일군들은 운전사들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해주며 그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와 함께 사업소에서는 앞선 때부터방법을 받아들여 장전장에서 내려오는 매들을 되받아 빨리 넘기기 위한 지렛대 전투를 벌렸다. 그리하여 연합기업소적으로 제일먼저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올렸다. 암록강류림사업소에서는 올해 봄에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물방이 급격히 불어나 유류한 조건에 맞게 때무이속도를 높이고 매를 이를 다그쳐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이여 삼수림산사업소가 년간계획을 완수함으로써 6월말까지 립산사업소적으로 3개의 사업소가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올렸다. 현재 연합기업소이며 부전, 통하, 상정림산사업소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며 년간계획완수의 마지막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펼쳐나선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천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어가고있다. 석탄증산투쟁이 힘진과 체탄막장물마디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탄부들이 막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이해주고 화산석탄사업소에서 탄부들을 위한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참모부의 작전에 따라 탄광들의 모든 체탄장들에서 작업공진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탄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2. 8직동청년탄광에서는 모든 갱들이 6월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7월에도 끝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체탄장을 넘겨나기 위하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7월에 들어와 6갱, 9갱, 1갱, 3갱, 청년갱, 8갱, 10갱들에서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어가고있다. 특히 6갱 체탄1중대, 10갱 체탄1중대, 12갱 체탄1중대, 2갱 체탄3중대를 비롯한 많은 체탄중대들이 일일계획보다 평균 1.2배의 석탄을 캐내며 대고의 일장에서 석탄증산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나가고있다.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펼쳐나선 청년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탄중과 탄상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체탄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석탄생산량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8갱 체탄4중대, 부흥갱 체탄1중대, 1갱 체탄3중대들에서는 세세한 공작전으로 련일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매일 체탄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며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캐내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1갱 체탄1중대, 3갱 체탄1중대, 2갱 체탄2중대, 6갱 체탄5중대들에서는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연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7월 석탄생산실적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리희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4월
주체77(1988)년 9월



함주군 조양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할머니에게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9(1960)년 8월

강계포도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5월

개천군 외서협동농장 여성뜨락또르운전수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2(1973)년 11월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3(1964)년 4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를 타시고 평양시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1(1972)년 4월

장강군 향하리의 한 농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8(1969)년 7월

바다가양식을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6(1987)년 11월



←개풍군 분계연선마을의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6(1957)년 8월

☆
☆ ☆

→남포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9(1960)년 10월



